

미군부대 C.R.C 담장 철거

국도3호선 우회도로 2006년 완공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오전 9시 30분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공사가 지연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미군부대 담장 철거공사로 2006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는 국도3호선(평화로)의 상습정체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93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추진하였으나, 공사중점구간(L=800m)에 저속되는 미군부대(C.R.C)와의 협의 지연으로 그동안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다.

이번 미군부대 담장 철거공사는 시가 10년에 걸친 미군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2003년 12월 22일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6월에 미군부대 대체시설 이전 공사에 대한 최종 합의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미2사단(사단장 조지 히긴스)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도가~미군부대내 주유소(L=200m)까지의 담장 철거공사를 2005년 8월 23일부터 착수하여 8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동 부지를 시측에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잔여구간(주유소~공사중점, L=600m)에 대하여 향후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의 개통시기(2006년 7월 1일)를 고려하여 2006년 1월 30일까지 미군측으로부터 반환 받아 2006년 1월중에 도로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군측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2006년 12월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도3호선(평화로)의 정상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미2사단장을 만나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문화관광부장관기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9월25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서 개최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이미숙)는 오는 9월25일 일요일 오전9시부터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7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무용을 전공하고자 하는 초·중·고·대학생과 무용전공인들의 무용예술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무용예술인 육성과 보급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경기도지사상, 한국예총회장상, 국회의원상과 1천500여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시지부는 오는 9월25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7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일반인은 9월1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참가신청서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uid4choom>) 경연대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참가종목은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며 한국무용과 외국무용부문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학생 및 일반

부로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가 후원하고 포천신문이 협찬하여 마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시지부(031-877-88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나눠주기식 분배편향 논리, 시장 신뢰 상실

손학규 경기도지사 '부동산 정책은 낡은 진보의 실패사례'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초점회에서 강연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요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치 않은 채 수도권 미니 신도시 건설 등으로 공급만 늘릴 경우 난개발만 우려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낡은 진보'의 실패사례라고 비난했다.

손 지사는 또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달성하려면 '나눠주기'는 식의 분배편향 논리에 사로잡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지난 26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초점회 강연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에만 인식하고 국민소득의 상승에 따라 주택수요의 질이 변화된 것을 의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지사는 "주택 문제의 해결은 수요의 특성에 맞춰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기본"이

라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의면하고 미니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매년 900만평씩 5년간 4천500만평에 달하는 신규토지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동산 문제를 세금을 막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 역시 시장의 논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령사회의 부담을 이겨내고 중국, 인도의 추격, 남북 통일비용(10년간 6천억달러 가량) 등을 생각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연평균 6-7% 성장만 확실 하다면 2015년 이전에 3만달러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3만 달러시대가 되려면 기업에게 환경을 만들어줘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이제 먹고살 만큼 됐으니 좀 나눠먹자는 식의 생각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광주리가 풍족하게 먹을 만큼 채워져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극빈세대 위로

14명의원 4개조로 나눠 쌀과 라면 전달

의정부시의회(의장 이창모)는 지난 23일 여름방학중 학교급식이 중단된 관내 결식아동 등 소년소녀가장 및 극빈세대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금년초 새해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채택된 이번 행사에는 이창모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4명이 4개조로 나누어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쌀과 라면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로대상 가정은 지난 7월말 각 동장의 추천을 통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및 극빈세대인 소외계층 위주로 선정된 가정들이다. 시의회 이창모 의장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무관심과 외면속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수도 없이 많으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면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의회에서 마련한 조그만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원들은 이날 의정부시청 을지연습장과 의정부경찰서 상 황실을 방문하여 2005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군부자들을 격려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에 공립 특수학교 설립

2009년3월 개교예정 초·중·고 과정

의정부시에 유치부와 초·중·고교 과정 장애우 교육을 전담할 공립 특수학교가 처음 설립된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의정부, 남양주, 연천군 등 경기 동북부지역 장애우들의 교육을 담당할 공립 특수학교를 의정부시에 설립, 오는 2009년 3월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특수학교(가칭)는 부지면적 1만4천㎡, 26학급 302명 규모로 2007년 3월 착공되며 부지매입비 158억원, 공사비 104억원 등 모두 2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학교부지 적합지로 보고 현재 의정부시청과 협의 중이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의 경우 유치부 장애우를 전담하는 희망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초·중·고교 과정을 담당할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우들이 서울이나 고양시 등지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는 특수학교 설립 추진운동을 벌여왔고 최근 3천167명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 등에 제출했다.

현재 북부지역의 경우 국립 한국경진학교(고양시)와 홀트학교, 명현학교, 밝은학교(고양), 희망학교(의정부) 등 5곳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중국 요녕성 단둥시 대표단 의정부시 방문

문화예술단·공무원 교류를 토대로 더 나은 교류 다짐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재대도시인 중국 요녕성의 단둥시 인민대표위원회 대표단이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접견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오후 4시 재대도시인 중국 요녕성의 단둥시 인민대표위원회 대표단(단장 미계원) 9명이 방문하여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이창모 의정부시의회회장을 접견하고 양시 간의 교류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시를 방문한 단둥시 대표단은 김문원 시장과의 접견에서 양시 문화예술단 공연 및 공무원 교류 등 양시교류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관계를 이룩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의정부시 의회를 방문한 단둥시 대표단은 이창모 의정부시 의회의장과 접견에서 양시 간의 교류에 의정부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후 의회청사 및 정보도서관을 견학하였다.

24일 일정으로 의정부시를 방문한 단둥시 인민대표위원회 대표단은 시내 주요시설 견학 후 30일 또 다른 재대도시인 순천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촉

2009년까지 554억원 투입 해 건립

경기도는 지난 29일 도청 신관1층 회의실에서 (가칭)경기도 선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 25명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도에 따르면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일대에 총사업비 554억원

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7,000㎡, 연면적 4,800㎡ 규모의 경기도 선사박물관을 200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박물관에는 지난 79년부터 2002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발굴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등 4천여점의 구석기시대 유물과 선사유적지 관련

자료 등이 전시, 보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전시프로그램이나 박물관 시설계획은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9월중에 선사유적지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유물전시관 등 관람, 건립예정부지, 지장물 현황조사, 역사문화촌 및 한탄강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선사박물관 건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업체 대봉매리트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닐 쇼핑백



비닐 제품



공장·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